지역 소식통

부안군, 4년 만에 민방위 훈련 집합교육 재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8일~29일 오후 2시부터 군청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4년 만에 민방위 훈련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1~2년 차 대원,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받아야 한다. 과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동일하게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됐다.

이번 집합교육 올해 민방위 1~2년 차 지역대, 직장대, 통대장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지진 시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과목으로 진행된다.

한편 기본교육 기간에 응소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의 보충교육(1차 9월/2차 11월)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이동식 악취 감시 차량 시스템 구축

정읍시가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으로 온종일 축산·공장지대 악취를 잡아낸다.

시는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4월부터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에는 악취 포집 장치와 악취 측정장치, 기상 측정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차량은 이동하면서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된 악취 수치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시료 포집을 통해 성분 분석 의뢰도 가능하다.

시는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이용한 악취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무원 근무 시간 외 악취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악취대응반은 주간·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환경 순찰 등 촘촘한 악취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민원을 응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조성

내달부터 세부 계획 수립등 본격 추진… 관광객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지난 28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은 정읍역 광장을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가을철에 편중된 관광객 유입을 시내 지역으로 유도하는 사업이다.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인구감소에 대응해 새로운 시내 관광지원을 개발함으로써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형우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 추진부서와 실·과·소장, 지역 동장,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의 비전과 핵심사업 추진계획, 예산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용역 조사를 토대로 4월부터 분야별 세부 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6년까지 유휴지를 활용한 창작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사계절 연중 다양한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사계절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로분수와 폭포터널, 발 담금 시설 등 물 테마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휴게?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여가·문화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지교와 죽림교, 정주교, 초산교, 상동교 등 기존에 조성된 야간경관과 연계해 교량 하부에 야간경관 특화 공간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정읍역 광장을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개발하고,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복개해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 이곳에 상설공연장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해 프리마켓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광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화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

부안군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결과 발표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은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 사업의 공모 결과를 지난 28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은 지역의 예술인(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한 예술인지원정책사업이다. 관내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작품 제작 및 발표가 공개되며,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실연, 연주 등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공연 8, 시각8, 문학5, 다원2, 생애최초 4건을 합쳐 총 27건이 접수됐고, 지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25건을 심의, 최종적으로 13건이 선정됐다.

분야별 선정건수와 개인 혹은 단체의 지원금은 예술창작지원의 경우 △공연3건(300만원~350만원) △다원1건(400만원) △시각3건(250만원~300만원) △문학4건(200만원)이고, 생애최초지원의 경우 △문학2건(200만원)이다. 지원금은 4월 3일부터 교부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부되고, 선정자(단체)는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게 된다.

전민정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인, 단체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선정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부득이하게 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협체크카드 출시… "수수료 낮아 가맹점 부담완화"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2800여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 연중 10% 할인판매

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NH농협체크카드를 출시, 고창 관내 농협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고창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와 삼성체크카드 두 종류가 있었으나, 3월부터 NH농협체크카드를 고창읍성 야경 사진으로 새롭게 제작해 보급한다.

NH농협체크카드는 타 신용카드에 비해서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더 저렴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민 접근성 등 측면에서 신청 및 발급에 편리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현재 가맹점은 2800개소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1801억원이고, 판매액은 1386억원으로 발행액 대비 77% 판매 실적을 올렸다. 4년간 총 환전액은 1276억원으로 판매액 대비 92%에 이른다.

이 중 개인 판매액은 1023억원으로 총 판매액 대비 74%에 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85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맞이 20% 할인판매를 통해 연초 5일간 106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체 구입자 중 20%는 관외자로 파악, 외부인의 사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연중 1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청보리밭 축제장은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관광객의 고창 상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년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예산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환영식

고창군이 29일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 1차로 입국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환영식과 교육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가뭄의 단비처럼 찾아온 계절근로자들을 맞기 위해 농가에서는 단숨에 달려왔으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손 부족으로 근로자가 오길 마음 졸였던 농민들은 이번 계절근로자 수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입국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는 급여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교육, 범죄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이번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입국에 맞춰 지난 2월 범군민 헌옷 기부 행사를 통해 모아진 작업복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했다.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및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농가에서 근로자들이 협업하여 성실히 일할 경우 이들은 재추천을 받아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창군에서는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번 1차 이후에도 2차, 3차 입국으로 인하여 총300명이 MOU로 농가들에게 최종 배치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한농연, 창립 28주년 기념식 · 가족 한마당대회 열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28일 황토현 어울림센터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제17회 가족 한마당대회를 열었다.

한농연은 어려운 농촌환경을 극복하고 한농연 회원간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족 한마당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노창득 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지역 농협장, 농업인단체, 한농연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창립선언문 낭독, 축사, 연대사 등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어 체육행사와 노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의 단합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진, 지역농업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김인덕 회장은 "농자재값 폭등, 농산물값 폭락 등 농업 위기 극복과 지역농업의 활로 개척은 한농연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과 함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제값 받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해양오염 대비 기관 합동 도상훈련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방제대책본부 운영 도상훈련을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부안군청, 고창군청,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및 해양자율방제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위도 동방 2해리 해상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약 10kl의 기름이 유출되는 가상의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방제대책본부는 3개부(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로 편성돼 해양오염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초동대응 조치 등의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 등을 통한 방제대응 능력향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연안해역 양식장, 갯벌 등 민감자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됐다.

/부안=김석진기자